

강진군 '불금불파' 국비 추진... '로컬브랜딩 활성화' 선정

특별교부세 3억원 지원 받아 병영시장 환경 개선 등 사업 '열린정원 이야기'·'한골목 자연 산책' 등 행사 추가 진행

강진의 대표 관광 행사인 '불금불파'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를 앞으로 국비 사업으로 만난다.

강진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불금불파'가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총사업비 6억원 중 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이번 로컬브랜딩 공모에는 전국에서 강진군을 포함해 10곳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생활 공간을 도보 15분 생활권 안에서 지역 특색과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강진군은 문화를 창조하고 마을을 살리는 신(新) 병영상인을 주제로 공모사업에 지원했다. 병영상인은 현재 마을에 활력을 주는 '주민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신 병영상인은 지역 활성화 주축이 되고 있다.

강진군은 로컬브랜딩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3억원을 불금불파 행사장 조성 및 행사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다. 불금불파는 오는 10월26일까지(7·8

월 제외) 매주 금요일·토요일 강진 병영시장 일원에서 열린다.

우선 행사장 주변과 병영시장 장육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기존 병영 한골목 열린정원 이야기 여행과 주민해설사와 함께하는 이야기 여행을 더해 새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한골목길 여행에 활력을 불어넣을 '병영을 맞보고 병영을 느끼는 한골목 자연 산책'을 새롭게 운영한다.

한골목 산책은 매주 토요일 선착순 10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 20분부터 1시간 30분간 진행한다. 병영의 한골목 일대에서 생태 여행을 진행한 뒤 병영면 식당에서 미식체험(중식)을 즐기는 방식이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농촌 체험인 '푸소'와 빈집 개선 사업 등과 함께 '불금불파'를 지역소멸 대응의 또 다른 성공 사례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연 불금불파 행사는 병영면 인구의 10배가 넘는 1만3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병영면 새마을부녀회와 청년회, 발전협의회 등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정기적인 축제로 연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라병영성, 하백기념관과 같은 병영의 관광자원과 주민 인적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강진군 병영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불금불파 행사장에서 관광객과 주민들이 흥겨운 공연을 즐기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강진군수는 "로컬브랜딩 공모 선정을 통해 병영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활력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지난해 군비로 시작한 '강진 불금불파' 사업은 새로운 도전으로 강진의 문화관광 자원을 개척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천년 고을' 나주시 다양한 국가유산 체험해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선정 4개 분야 체험·교육 프로그램

"2000년 역사·문화도시 나주에서 펼쳐지는 국가유산 문화 체험 행사에 초대합니다."

나주시가 지역 문화유산의 효용성을 높인 다양한 각색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나주시는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의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역사·인문·체험 등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험 프로그램은 지역에 산재한 국가 유산의 가치 재조명과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제공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화유산이 지역민들에게 더욱 친밀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장소에 담긴 역사적,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나주시가 선정된 사업은 '생생 문화유산', '문화유산 여행',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학교',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등 4개 부문이다.

'생생 문화유산'은 나주문화원 주관으로 나주읍성 문화재와 영산강 정자 탐방, 천연염색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유산 여행'은 밤에 금성관(錦城館·보물 제 2037호-조선시대 객사), 나주향교, 나주목사내아 등 나주읍성 문화재 일원에서 펼쳐지는 축제 행사로 오는 9월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개최할 예정이다.



나주문화원이 주관한 '생생 문화유산' 사업으로 나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학교'는 조선시대 호남 최대 규모의 향교 건축물인 나주향교에서 유교문화와 예절교육, 전통놀이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다.

비지나무숲과 야생차밭이 유명한 나주 다도면에 위치한 천년고찰 불회사에서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체험으로 전통차 시음, 예절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현재 '나주문화유산 여행'을 제외한 3개 프로그램은 진행 중이다.

사업별 신청 문의는 ▲생생문화유산-나주문화원(061-339-5115) ▲빛가람발전협동조합(010-9809-3563) ▲향교굽은 소나무 학교-나주향교곶텐츠사업단(061-334-2338) ▲전통산사 문화유산-불회사(061-337-3440)로 하면 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군 '착한가격 업소' 16곳 신규 지정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 평가

장흥군이 좋은 가격과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16곳을 올해 신규 지정했다.

'불가안정 착한가격업소' 목록은 장흥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흥군은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를 골랐다. 물가 대비 저렴한 가격, 청결한 위생상태, 지방자치단체 시책 이행 등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소는 요식업 15곳, 숙박업 1곳 모두 16곳이다.

장흥군은 지난달 신규 신청을 받아, 심사기준에 따라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을 평가했다. 현지실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했다.

장흥군은 착한가격업소로 간판을 걸고 각종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착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직자 착한가격업소 이용 주관을 운영하는 등 홍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이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반려동물 기반시설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학교면 소재 동물보호센터 이전 추진

반려동물 시설 확대 용역 보고회

함평군이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공원 등 '반려동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함평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반려동물 기반시설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임만규 함평군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공무원과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타당성 등을 점검했다.

반려동물 기반 시설에는 반려동물 공원과 놀이터, 애견카페 등이 포함된다.

현재 학교면에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센터는 개인 축사를 개조해 임시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함평군은 3개 부지를 놓고 적합한 기반시설 건립 후보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러 의견을 반영해 오는 7월에 최종보고회를 열고, 후보지 주민을 찾아가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함평군은 신중하게 건립 후보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용역 기간을 한 달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 만원 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94명 입주자 추첨

미달 신혼부부 몫 7호 추가 모집

올해 2년 차를 맞은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추첨식에서 94명의 대상이 선정됐다.

화순군은 지난 26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입주자 추첨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만원 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20평형 아파트(66㎡·부영주택)를 최장 6년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이날 추첨식에는 대상자 541명 가운데 505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청년 부문 입주자 50호를 뽑는 추첨에는 462명이 몰려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화순군은 먼저 신혼부부 추첨을 하고, 이어 청년부 추첨을 진행했다. 올해는 청년과 신혼부부 몫으로 총 101호(중간 퇴실 1호 포함) 입주자를 뽑았다.

추첨식에서는 청년 51명과 신혼부부 43명이 입주자로 선정됐다. 예비 입주자 10명을 포함해 총 104명이 입주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신혼부부 서류심사 통과자 가운데 행사 참여자가 43명에 그쳐 남은 7호의 물량은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열린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추첨식'에서 한 청년이 당첨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있다.

당첨자는 오는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14일 이내 화순군으로 전입신고와 마쳐야 한다. 화순군은 내년에도 20평형 아파트 100호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이날 추첨식에서 "화순 만원 임대주택이 다른 지자체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어 뿌듯하기도 하고 아까가 더 무겁기도 하다"라며 "화순 청년들이 주거와 일자리, 더 나아가 양육의 문제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화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장성군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업체 추가 모집

31일까지 접수... 다음달 선정

장성군이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지역 농·축·수·임산물, 가공식품, 지역 특산물, 관광·서비스다. 장성군에 주소를 둔 사업체로 답례품을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단 지방세나 국제 등을 채납했거나 휴·폐업 업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필수 신청 서류를 갖고 장

성군 총무과 자치분권팀에 방문하면 된다.

장성군은 오는 6월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현장 방문도 할 계획이다.

장성군에서는 총 63개 업체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에 참여하고 있다. 대표 답례품으로는 사과, 귤, 백양사 텀플스테이 이용 할인권 등이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의 특·장점을 담은 우수한 답례품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